



## 한-베트남 총리회담 개최

-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,500억불 목표 달성 노력 -
- 첨단·미래산업, 개발, 중소·벤처·스타트업, 인적교류 등 분야 협력 고도화 -
- 한-아세안 연대구상(KASI) 이행 및 역내 평화, 안정, 번영을 위한 공조 강화 -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2일(화) 오후,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방한 중인 「팜 밍 쩡(Pham Minh Chinh)」 베트남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.
- 양 총리는 한 세대 만에 양국이 상호 3대 교역국이자 핵심 투자협력국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룬 것을 평가하고, 2030년까지 교역액 1,500억불 달성을 위한 교역·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, 첨단·미래산업, 과학기술, 개발협력, 중소·벤처·스타트업, 핵심광물 공급망, 문화·관광·인적교류 등 분야별 협력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  - 쩡 총리는 베트남 내 최대투자국인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으며, 베트남의 연구·개발 역량 강화 및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측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.
- 양 총리는 2025년 베트남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, 한 총리는 한-베트남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면서, 정책·기술 교류, 민간투자 활성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.
  - 또한, 양 총리는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의 연내 개설을 위해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.
- 양 총리는 북한·북핵 문제 및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·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,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역내 평화, 안정, 번영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.

- 총리회담 직후 개발협력, 교역·투자, 중소기업·혁신·스타트업, 환경, 경쟁 및 소비자 보호, 교육, 인재개발 등 분야의 총 9건의 기관간 양해각서 등 협력 문건이 양국 총리의 임석하에 체결되고 교환되었다.
- 한편, 한 총리는 같은 날 저녁,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쩡 총리 내외와 베트남 대표단을 위한 만찬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.
- 양국은 이번 한-베트남 총리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.

붙임 : 한-베트남 공동언론발표문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 장 김진환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서기관 박철순	044-200-2135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